

LG 실속형 스마트폰 유럽·중남미 등 킷발

20만원대 'K시리즈' 라인업 확대 화면 등 주요 사양 동급 최고수준 합작 개발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LG전자가 경쟁력을 갖춘 실속형 스마트폰 신제품을 글로벌 주요 시장에 본격 출시하며 스마트폰 라인업을 강화한다.

LG전자는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 중남미 주요국에 연이어 'LG K50S', 'LG K40S' 등 LG K시리즈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제품은 권장소비자가 기준 200달러(약24만원)대 제품이다. 실속형임에도 화면, 카메라, 배터리 등 주요 사양을 동급 최고 수준으로 탑재해 경쟁력이 뛰어나다.

LG K50S는 6.5형 디스플레이와 4000밀리암페어시(mAh)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했다. 또 전면에는 1300만 화소 표준카메라를, 후면에는 1300만, 500만, 200만 화소의 표준, 광각, 심도 카메라를 각각 탑재했다.

LG K40S는 6.1형 디스플레이와 3500mAh 배터리, 전면 1300만 화소 표준카메라와 후면 1300만, 500만 화소 표준, 광각카메라를 탑재했다.

두 제품은 모두 미 국방부 군사표준 규격, 일명 '밀스펙'의 고온, 저온, 열 충격, 습도, 진동, 충격 등 6개 항목을 충족하는 내구성을 갖췄다. 'AI카메라', '구글어시스턴트' 'DTS:X 입체 음향' 등 다양한 편의기능도 장점이 다.

LG전자는 신제품 2종을 '합작개발 생산(JDM)' 방식으로 공급한다. LG전자가 제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제품설계, 부품조달 등은 외부 업체와 협력해 공동 진행하며, 생산



(위쪽부터)LG K50S, LG K40S. /LG전자

은 외부 업체가 전담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이 같은 생산 방식 도입이 스마트폰 사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과 생산에 드는 비용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품질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외주 생산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역량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곧 내부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부의 역량을 미래사업 준비와 같은 핵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LG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발표에서 "기존 저가 제품 위주이던 스마트폰 외주 생산을 내년부터 중가 라인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포스코,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 우대

최정우 회장 "공생의 가치 확산되길"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오는 2일부터 도입한다.

포스코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 등록평가지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서 최저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 참여시에는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100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을 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

쉽게하고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확보와 매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회장은 "포스코가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으며 올해는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상생결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양성문 기자

삼성, AI기반 사내벤처 4곳 창업지원

C랩 과제 스타트업 4곳 선정 "200명 신규 고용창출 효과"

삼성전자가 C랩 우수과제 창업 지원 스타트업 4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C랩은 삼성전자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이다. 2015년 8월부터 '스핀오프' 제도를 통해 우수 과제 독립을 지원해 145명 임직원이 40개 기업을 새로 만들어 200여명 신규 고용 창출 등으로 이뤄왔다.

이번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개발한 루플·투스퀘어·트리니들·조이브로 등 4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루플은 AI 기반 라이팅 디바이스를 개발했다. 지난 1월 CES 2019에서도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을 파악하고 답러닝해 최적의 집중환경을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 라이팅 시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투스퀘어는 텍스트 문맥에 따라 동작과 표정이 변하는 스마트 리소스를



삼성전자는 C랩 스페인오프를 통해 사내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했다. /삼성전자

개발했다.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만화물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잇셀프에 적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트리니들은 1인 방송 화면에 증강현실을 활용해 이미지 또는 영상을 송출하는 서비스 '티스플레이'를 출시했다. 텍스트의 한계를 AR로 극복하는 서비스다.

조이브로는 사용자가 좋아하는 향을 찾아 향수나 홈 프래그런스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추천 레시피를 시향한 후 좋아하는 향을 선택해 원하는 제

품을 주문할 수 있다.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 한국인구상무는 "앞으로도 우수 아이디어의 스타트업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C랩 아웃사이드'도 운영 중이다. 5년간 스타트업 과제 200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20개 업체가 '졸업'을 마치고 18개 신규 스타트업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김재용 기자 iuk@



삼성 QLED TV 美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인기 폭발

삼성전자는 미국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자사 TV가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 11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베스트바이 매장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삼성 TV를 구입하기 위해 쇄도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 3분기 북미시장에서 금액 기준 점유율 40.1%로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SKT 용인에 '미래직업연구소' ICT기술로 진로탐색 도와

SK텔레콤은 청소년들의 정보통신 기술(ICT)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용인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 '티움 드림랩 미래직업연구소'를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SK텔레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전국 어린이 대상 ICT 정보 격차 해소 노력에 용인문화재단이 적극 호응해 이뤄지게 됐다. 양측은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의 ICT 역량 증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 개소한 '티움 드림랩 미래직업연구소'는 SK텔레콤이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어린이들의 ICT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티움 모바일'의 '미래직업연구소' 콘텐츠를 이용해 구축됐다. 2년간 상시 운영하는 티움 드림랩 미래직업연구소는 지난 5월 재개관 후 3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수 10만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은 티움 드림랩 미래직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미래직업연구소' 관련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용인문화재단은 SK텔레콤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체험관 운영을 총괄한다. /김나민 기자 silkni@

수입SUV도 덩치 키우고 실내공간 'UP'

>> 1면 '더 크고, 고급스럽게'서 계속

볼보 S60은 전장 4760mm, 전폭 1850mm, 전고 1430mm, 휠베이스 2872mm로 그랜저보다 조금 작다. 전장은 그랜저보다 230mm가 짧지만 휠베이스는 단 13mm가 짧다는 게 눈길을 끈다. 전장이 짧으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휠베이스가 실내공간을 결정짓기 때문에 수치상으론 그랜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출시된 닛산 신형 알티마는 기존 모델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가 모두 늘어났다. 5세대 전장 4875mm, 축거 2775mm에서 6세대는 전장 4900mm, 축거 2825mm로 각각 전장 25mm, 축거 50mm 늘어났다.

아우디가 지난 10월 출시한 신형 A6는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넉넉한 실내공간은 물론 외적으로 묵직한 감을 담고 있다. 전장은 4950mm, 전폭과 전고는 각각 1885mm, 전고 1460mm로 동급 모델 중에서 가장 길고 넓다.

수입 SUV 중에서는 벤츠와 랜드로버가 선보인 GLE와 올 뉴 레인지로버가 크기를 키웠다.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E.

한국 SUV 시장 공략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한 벤츠가 새롭게 선보인 더 뉴 GLE는 이전 모델 대비 휠베이스가 80mm 늘어나 실내 공간도 넓어졌다. GLE 최초로 3열에 좌석을 설치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

8년만에 풀체인지를 이룬 콤팩트 SUV 올 뉴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이전 모델보다 21mm 길어진 휠베이스로 더욱 넉넉해진 실내공간을 자랑한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업체들이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롭게 풀체인지는 되는 대부분의 모델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